

이웃의 가난한 자들 돋기

-로마의 마리아니스트 신학원 수련자들-

사도직이란 말은 봉사를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마리아니스트 사도직 양성 과정(인간, 영성, 신학, 마리아니스트와 사도직)은 봉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늙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매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신학원 수련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인 봉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를 들면, 마더 데레사의 사랑의 선교회와 함께 일하고, 레지오 마리아와 함께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산 Egidio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다. 한가지만 자세히 설명하면, 로마 마리아니스트 신학원 근처에 열 다섯 명의 어르신들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을 맡고 있는 산 Egidio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는데 함께 하자고 우리 신학원에 제안하였다. 신학원 수련자들을 이 일을 함께 하면서 특별한 기쁨을 느끼고 있다.



좌측 사진 중앙 맨 뒤쪽에 로마에서 수련 중인 최봉규 사비오 수사님이 보입니다.